

## 교회의 천명

레위기 25:8-12, 디모데후서 2:1-7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돌린다. 구약본문에서 오늘 본 대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한다. 기쁜 해라는 뜻이다. 이 해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해라고 했다. 일곱 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는 해방의 해였다. 이 해를 우리 참사랑교회가 맞이한 것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사자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는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원한다. 이 50년을 보내면서, 나는 본교회 담임목사로서 노회가 주신 위임의 권위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사면하기 원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뭐가 잘 안 되는가, 저주를 받는가, 문이 막히는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님이 이 50년이 되는 해에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주의 종으로서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워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딱 막힌다. 성경 전체를 봐야 하나님의 뜻, 명령, 계획을 알 수 있다. 오늘을 기해서 그것은 가질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잘못하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기본 나쁘게 한 사람을 다 용서하라. 우리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란다. 50년이 되는 해에는, 너무 가난해서 팔았던 땅이라 해도 이유를 묻지 않고 돌려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토지 정책이다. 처음 12지파에게 나누어주었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든 백성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땅도 돌려주고, 몸을 팔아서 집에서 농노였던 사람도 놓아주고, 모든 빚도 탕감하고, 잘못된 것도 용서하게 했다. 최고 기쁨의 해가 희년이다. 일곱 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배풀어지는 해다. 개인의 마음에 맺힌 것이 풀려 버려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정죄했어도 괜찮다. 이 날에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다. 50년, 희년의 날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방하시고 풀어주시는 자유의 날인 것이다. 이 축복이 모든 참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라. 그렇게 언약을 따라서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켜서 50년을 지나오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50년을 은혜의 50년이었다고 믿는다. 내가 오니까, 전임자 네 분이 13년을 시무하셨다. 14년째 되는 5월에 참사랑교회에 부임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한이 없었다. 두 번의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지역과 모든 현장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희년을 맞이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마음껏 감사하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희년 감사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모두 헌당예물로 쓸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오늘 두 예물을 받았는데, 한 분은 자녀가 빛나기 된다. '목사님, 저희가 참사랑교회 역사에서 300인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다. 어떤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하더라. '목사님, 제 인생 동안 헌금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 50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도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자. 누가 와서 누가 모든 것을 해 주고, 나는 누가 기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은 이 기념일에 교회의 천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 1. 우리 교회의 정체성

희년을 맞이한 우리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 앞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하지 않았다.

(1)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오늘, 1967년 9월 17일에 세워졌다. 공교롭게도 50년째 되었는데 딱 그 날에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했다. 그때 오순절은 정작된 마음이었다. 서울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내 판자촌을 철거했다. 불광동, 서율역 인근의 판자촌이 보기 싫으니까 정비한 것이다. 외국인들 보기 부끄럽다 해서 정리하면서 판자촌 주민들을 다 멀리 보내 버렸다. 그 중에서 농촌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쌀 땅 3천 평을 주었다. 포천에서도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매일 싸움만 하고 지역 주민들을 두들겨래고 하니,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정작된 마을에서 시작해서 정작된 마을에서 목회를 끝까지 하게 되었다. 성남에 간 사람들은 산을 깎지도 않고 땅을 췌는데, 서울에 가깝다 해서 20평을 줬다. 오금동은 그래도 서울이라 해서 그냥 땅 여섯 평만 줬다. 거기서 살아라 하고 청소하러 살아가, 사람들을 여기 갖다 버린 것이다. 그 여섯 평에도 한 집이 못 살아서 두 집씩 살았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했다.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조기 하나만 구워먹어도 동네가 다 알았다. 허투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었다.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언덕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아침만 되면 장사진이다. 신문지 들고 밖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는 것이다. 빨리 나오라 하고 참고 있고, 돌이켜보면,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웃을 수 없었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라는 분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장로

님이 기도하신 대로, 복을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남대문교회의 한도 장로라는 분이 그것을 보고 24인용 군용천막 하나를 사 주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의 시작이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해(河海)와 같다. 그래서 작은 교회 건물을 세웠는데, 리어가 못 다났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성내천 따라 내려가다 보면 개울이 한강에서 밀려온 모래가 있었다. 그것을 모아서 블록으로 찍고, 그것을 이고 오고 들고 오고 날라 와서 대머리산 정상에 교회를 지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땅은 12평뿐이었고, 시유지가 20평이었다. 그 땅에 지은 것이 첫 번째 성전이다. 어려웠지만 참 은혜로운 교회였다. 이번엔 교회사가 나오면 그런 사진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흑암세력이 틈타기 시작한 것이다. 가난한 집에 싸움이 많지 않나.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는 사건도 있었다. 부임해서 보니까 이미 갈라져 있었다. 돈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나갔다. 180명 중에서 99명이 갔다. 그들이 세운 교회는 없어졌고, 그 남은 몇 명이 여기 밀알교회에 와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다. 제일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만 남았다. 거지들만 남았으니 당신은 보파리도 못 풀고 갈 것이라고 나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른다. 이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붉은 페인트로 '구멍에 불타는 교회'라고 붙였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글자로 붙여 놓고 전도에 올-인 했다. 다시 전도하고 심방하고 양육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 3년 사이에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는 동안에 88올림픽이 있게 되고, 이 지역이 개발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많은 새로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우들을 훈련시켰다. '저분들이 어떤 우리 자리를 내어주자, 환영하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교회인데 당신들이 왜 와서 우리 자리를 뺏으냐" 하는 것처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것을 몇 개월을 훈련시켰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했다. 우리 교우들도 그분들을 잘 받아들였고, 새로 오신 분들도 기존의 성도들을 존중해서 잘 살았다. 인격자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히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을 내면서 이런저런 봉사도 했다. 교회는 중건교회라 되었다. 교인이 500, 600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이웃들에게서도 그렇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은 들어보지 않았다. 그런데 나 자신은 뭐가 모자랐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왜 그런가 싶었다. 또 고민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심자기와 부활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희한하게도 성도들은 오뎅이같았다. 밀어도 밀어도 조금 흔들리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오뎅이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나.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해서 교회를 겨우 유지했다. 왜 그럴까. '성경은 복음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 했는데 우리는 왜 새 사람이 안 되는가,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싶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건드리기만 하면 옛 사람이 바로 나왔다. 그게 나는 너무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이 복음운동을 만났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려고 갔다가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놀랐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시대에 살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게 성도의 삶이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전도가 되 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이 저렇게 성취되는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나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정말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도 변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도 될 수 있다고 말씀했구나. 나는 복음만 말하다가, 복음운동만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번 아웃(burn out)이 왔을 때 복음운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고,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많은 핍박도 받았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면서, 너무나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른 손해들도 너무 많았다. 그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3성전을 주신 것이다. 지금 전도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전도복지의 모델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램턴트운동을 하게 하셨으며, 세계복음화운동을 하도록 꿈을 꾸게 해 주신 것이다.

(2) 이렇게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세 가지 정체성을 보게 된다.

① 첫 번째 정체성은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시작할 때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였다. 시작할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이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50년 역사 속에서 계속된 교회의 관심이었다. 어느 전도사님이 부임했을 때 내가 부탁했었다. "전도사님, 주일학생들에게 두 가지씩 가르쳐 주세요.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십일조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나중에 내가 복음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왜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것 하느냐, 종교인 만들지 마라' 했더니,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가 버렸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50년 역사 속에서 계속된 교회의 관심이고 과제였다. 그 중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와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 장로님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나갔다. 국회의원 장로님도 가셨다. 거의 200명에서 250명이 뒤돌아섰다. 그분들이 전부 괜찮은 분들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다.

② 두 번째 정체성은, 참사랑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라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든 끝까지 남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참사랑교회다. 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 이사야 6:13에, '참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고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남은 자들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 주셨다.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식 때문에, 지역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은 교회의 역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다. 램턴트다.

③ 세 번째 정체성은,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도 괜찮다고 결단한 전도자들의 모인 교회라는 것이다. 누명을 써도 괜찮고,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어, 초대교회처럼, 마가다라방교회처럼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 때문에 세워졌고, 남은 자들의 교회이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도록 결단한 자들의 교회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못 건널 것이다. 이렇게 5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50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한다.

## 2. 우리 교회의 천명

그러면 이 회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은 무엇일까.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지 기도제목은 찾아보아야 되겠다.

(1)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지구를 몇 십 번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핵폭탄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까지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게 터지면 다 죽는다. 지금 시대는 우발 전쟁이 가능한 시대다. 미친 사람이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 죽였다.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버튼 누르면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올 것을 말씀했다. 모든 세계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종말이 오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될 때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듣는 것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라. 우리가 올린 복음소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 구글의 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도는지 모른다. 인터넷, TV,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보고 있다. 가서 전화 필요도 없게 된다. 아무도 쫓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때가 와 있다. 어떤 선교단체는 글이 없는 종족에게 가서 글을 만들어주면서 성경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 마태복음 24:14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곧 되는 것이다.

지금 영적으로 큰 위기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상은 우상이 문화와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타락으로 가고 있다. 유튜브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사단이 얼마나 더럽게 지구를 가지고 노는지, 아이들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지 모른다.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찍고 보고 있다.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유럽 교회는 망했는데 두 가지 이유다. 그놈의 논문을 쓰다가, 똑같은 내용을 써 오면 집어던진다. 새 말을 써 오라고 하는데, 하늘 아래에 새 말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해 오라고 하니, 뭐라고 자꾸 고등비평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新)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다. 교회 밖에도 구글이 있다. 성경은 신화다 하면서 영뚱한 이야기를 한다. 인본주의, 신비주의가 난무한다. 필리핀에서 어떤 단체는 집회하면 50만 명이 모인다고 한다. 필적필적 날뛰면서 신비주의를 하는 것이다. 율법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한다.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다. 3단체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계속 함몰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합동측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65%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 지금 신학교 현금을 그냥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유럽에는 신학교에 신학생이 안 온다. 정부에서 월급 다 줘도 신학교 유지가 안 된다. 미국의 최고 신학교가 풀러신학교인데 학부생이 없어졌다. 신학교가 점점 안 된다. 장신대는 경쟁률이 6:1이었는데 지금은 1:1도 안 된다. 통합교단은 신학생이 안 모이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7개 신학교를 합쳐야 하느냐 이해야 하느냐 논의하고 있다. 군소 교단은 아예 신학교가 안 된다. 주의 종이 안 나오면 교회가 안 된다. 무서운 시대다. 주의 종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고, 그러면 망하는 것이다. 북 아메리카는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 그랬더니 19명의 왕들이 계속 악한 왕들만 나왔다. 결국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 버렸다. 이런 위기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 참사랑 공동체를 부르고 계신다.

(2)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시대에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는가? 성경은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다. 갈수록 혼란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되어진다고 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일심 전신 지속하는 교회가 되도록 결단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와 선교에 올 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는다. 그 중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전문화해서, 대표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① 앞으로 시대는 점점 병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두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치우하여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진정으로 전도복지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필리핀, 일본,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셨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어떡하든지 내년에는 피터 투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국의 영성의 비밀과 교회의 움직임에 보여주고 싶다. 복음 훈련을 받도록 해 주고 싶다.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③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미래 재앙을 막고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램프를 일으키고 세워서 모든 현장으로 파고들도록 해야 한다.

램프 운동, 선교사 파송하는 세계복음화운동, 치유와 전도복지운동의 모델이 되자. 이것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다. "네 손에 뭘이 있는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하다. 마른 나무지팡이가 하나면 너는 충분히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풍요롭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3) 여러분, 나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 가문 전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나 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삼, 사대, 그 후대의 세대까지, 우리교회 안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감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전도운동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가문, 후손은 교회를 지키면 된다. 교회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지키고, 우리 후대는 교회를 지킨다. 교회가 어떤 유희와 폼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여러분 가문이 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가문이 다 합쳐라. 여기에서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해 보라. 여러분 가문이 다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한다.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가문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한다. 히브리서 11장의 가문들을 이루시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오늘 신약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이끌어야 하는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먼저 강해져라. 이 복음을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하라." 계속 전달되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위기 시대 속에서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변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서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나는 이것이 주님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라고 믿는다. 세 가지 기도제목에 깊이 각인시켜야 되겠다.

(1) 첫째로, 우리교회의 천명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도록 각인하기를 부탁드린다. 전도복지, 세계선교, 램프를 통한 세계복음화운동이 우리 자신의 꿈으로 자신과 후대에 각인되기를 축원한다.

(2) 두 번째다. 이 큰 꿈이 나의 작은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급어를 받으면 첫 급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것을 지킨 자는 일생을 하나님에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체험했다.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부족함이 없이 책임지신다. 제일 많이 받을 때 내면 좋은데, 첫 월급은 제일 적게 받는다. (웃음) 그것을 첫 열매로 드리니까 드리는 게 또 이익이기도 하다. (웃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첫 열매, 그것을 드리는 첫 마음, '나를 주님께 드림이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청년들은 잘 알아들여라. 무슨 시대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당신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 꿈이 날마다 사실로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작은 기도, 작은 실천이다. 큰 꿈을 각인시키고, 이 꿈을 두고 현장에서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나가기기를 축복한다.

(3)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천명을 감당하도록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이 언약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닌가. 에밀 브루너(Emil Brunner)라는 신학자는 말했다. "The Church exist by mission, as the fire exist by burning." 불은 타야 불인 것처럼, 불은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만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표어로 붙잡고 시작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교회인가. 우리 모든 교인들은 복음소식을 마음에 다 담아야. 누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만나도, 거지를 만나도, 무지한 자를 만나도, 박사를 만나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의 복음소식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느냐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인사를 내가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 내가 정말 나만 바라보고 믿으면 내가 해 준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 보라." 주님은 말씀하신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려고 내가 다 계획해 놓았는데,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8의 말씀이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주실 100년의 응답을 향하여, 앞으로 5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참사랑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게 해주마.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 주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주의 사업에 올 만한 사람이 굶어죽은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면 순교자 중의 순교자가 되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란다. 50년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꿈꾸면서, 그 길을 향해서 도전하고 달려가고 힘을 내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인도를 받는 참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50년 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50년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며, 앞으로의 50년 동안에는 더 위대한 전도복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온 세계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며, 우리 램프들을 키워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배출해내게 하시며,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인물들처럼, 후후죽순 신앙의 위인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고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발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며, 직장을 축복하시며, 저들이 키우는 램프들을 어리다가 장성한 감람나무처럼,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